



‘수강신청 문제 서명운동’ 시작부터 난항

꿈꾸는 고래, 총학생회, 학사지원팀 각기 다른 반응

2017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 끝난 후 약 3주가 지났지만, 수강신청 관련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는 지난 학기 수강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강의계획서가 잠바구니 기간 전에 올라오지 않아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17학번 학생들의 필수 이수 과목인 '상상력 이노베이션' 일부 강의의 교수명·과목코드가 수강신청 책자에 명시된 것과 실제 수강신청에 사용된 것이 달라 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이 끝난 후, 상상력 이노베이션 강의와 융복합교양 과목인 '소프트웨어 DIY' 강의 분반을 학교가

임의로 바꾸어, 사전에 강의계획서를 살펴 자신의 학습 방법에 맞는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합 동아리인 '꿈꾸는 고래' 한성대 지부에서는 수강신청 기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10명 학생에게 서명을 받아,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9월 20일 기준). 꿈꾸는 고래 한성대학교 지부의 김우진(역사 3) 대표는 "수강신청 논란은 우리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다. 수강신청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수강신청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우리대학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교과과목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총학생회장이 이와 관련하여 교무처장과 미팅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총학생회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호(산공 4) 총학생회장은 꿈꾸는 고래의 서명운동 활동과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 학기 수강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학생회와 학교가 함께 논의하고 개선하고 있는 내용을 꿈꾸는 고래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학교 측에 꿈꾸는 고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 그동안 해온 논의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학기에 문제가 됐던 사항의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학기에 처음 도입된 '잠바구니 정정기간'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고자 한 것"이라며 수강신청 제도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염정훈(학사지원팀) 과장은 수강신청 후 일부 강의의 분반이 바뀐 이유에 대해 "교수 변동이 있어 이후 수강신청 책자를 수정했지만, 따로 학사지원팀에서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책자에 실린 과목 코드와 교수명이 실제와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상상력 인제학부, 교양과정, 일부 학과에서 분반 조정을 요청했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꿈꾸는 고래의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꿈꾸는 고래가 학사지원팀에 직접 연락을 준 적이 없으므로 정확한 요구사항을 모른다"며 "학생이 개별적으로 학사지원팀을 방문해 의견을 개진하면 검토 후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본교 인재상과 핵심역량 개정

학내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 예상돼...

우리학교 인재상 및 핵심역량이 지난 8월 30일자로 최종 개정됐다. 이전 인재상은 '상상으로 도전하는 세상의 중심형 인재'였으나, 현재는 '창의적 전문인·포용적 사회인·열린 세계인'으로 변경된 상태다. 핵심역량 부분은 '창의·네트워크·글로벌'이었던 것을 '창의융합·대인관계·글로벌'로 교체했다.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재정립한 이유에 대해 윤경준 전 기획처장은 "기존의 것은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이 다소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용어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이하 K-CESA)에 의뢰해 지난 2016년 12월, 재학생 288명에게 대학생 핵심역량으로 꼽히는 6가지 분야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라 우리학교는 교수진, 재학생 및 다양한 학내 구성원과 논의 거쳐 우리학교 학생들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선별했다. 이번에 수립된 새로운 인재상 및 핵심역량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도입됐다. 그러나 인재상 중 '포용적 사회인'의 하위 항목은 교과과정과 연계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 8월 일부 수정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광현 기

획처장은 "학생들이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핵심역량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수립하는 중"이라며 진행상황을 알렸다. 우선 이번 학기부터 강의계획서에 해당 강의를 들으면 어떤 역할을 몇 퍼센트가량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입하는 란이 생겨났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정 역량을 타 역량에 비해 우수하게 성취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학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할 계획이며, 다음 학기부터는 교양 과목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더불어 노 처장은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 10월 내로 'High Success(가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기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한 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인재상 및 핵심역량 수립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트랙제, 학사제도, 학내 시스템 등에 여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 처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새롭게 개편된 인재상 및 핵심역량에 맞는 진정한 'CENTER형'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학술정보관의 야심작 '상상독서' 운영 시작

학술정보관이 이번 2학기부터 독서포털 시스템 '상상독서'의 운영을 시작했다. 독서포털시스템은 상상독서 프로그램, 한성인 서평, 상상독서 컨설팅, 상상 커뮤니티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상상독서 프로그램은 학술정보관의 독서클럽, 테마가 있는 독서아카데미, 저자와의 만남, 나의 리뷰, 한성인 우수 서평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활동의 시행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상독서 홈페이지(book.hansung.ac.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에는 비교과 포인트와 함께 마일리지도 지급되는데,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화이트, 실버, 골드, 플래티넘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프로그램마다 획득할 수 있는 마일리지도 다른데, 활동에 따라 최소 5점부터 최대 120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1년간 최대 270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으며, 이렇게 결정된 등급에 따라 혜택이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일례로 학술정보관은 학생들이 등급을 높이거나 플래티넘 등급에 도달하면 장학금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한성인 서평은 '베스트 리뷰'와 '멘토'의 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이 자신이 읽은 책의 감상을 '마이 페이지-나의 리뷰'에 작성하면, 그중 우수 리뷰가 '베스트 리뷰'로 선정된다. '멘토'의 서재에는 학생들의 독서 멘토가 되어

줄 교내외 지식인들의 인터뷰가 수록된다.

상상독서 컨설팅은 '한성독서 200선'과 '독서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성독서 200선은 한성독서프로그램 운영위원회가 우리학교 학생에게 추천하는 분야별 고전과 도서 목록이다. 학술정보관은 등급마다 독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인데, 독서 컨설팅에서는 학술정보관 사서와 학생이 1:1 맞춤형으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의 독서 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다.

상상 커뮤니티에는 독서클럽 활동 보고서가 게재할 수 있다. 독서클럽은 기존에 학술정보관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멘토 역할을 하는 교수와 5-10명의 학생들이 도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독서 토론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활동 모임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비교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독서클럽에서 토론한 내용과 활동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곽동화(학술정보관) 담당자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상독서를 기획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지면안내

보도

끊이지 않는 트랙제도 '집음', 위기 달고 꽃길 걷나

02



사회

광역모집제로 몸살 앓고 있는 대학가

03

문화

의지박약 당신을 위한 운동 처방전, 스포츠 놀이터

04



사람사

나를 파는 청년들의 이야기, '나물투데이'

05



학술

동화책을 손에 든 이야기꾼들

06



오피니언

의화정, 삼학송 등

07

인명보장·상시모집
hansungnews@gmail.com

정보모집

기자사령

임수승기자 박아름(대선 1)
박금정(전자 2)

끊이지 않는 트랙제도 '잡음', 위기 딛고 꽃길 걷나

트랙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2학기 째에 접어들었다. 2개 이상의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트랙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학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트랙제도의 그 혁신성과는 별개로, 트랙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트랙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에 한성대신문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트랙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학부 간 수업료 차이'를 필두로 한 시스템적인 문제, 소속감 저하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나누었다.

먼저 시스템적인 문제로는 ▲학부 간 수업료 차이 ▲미실기 입학 학생 실기트랙 수강 허용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 미보장이 있다.

현재 17학년부터는 본인이 소속된 학부 이외에 타 학부 트랙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소속 학생이 ICT디자인학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 문제는 학부별로 지불해야 하는 등록금이 다르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예술학부와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은 다른 학부보다 1백만 원가량 등록금을 더 지불하고 있다. 이들 학부 소속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다르게 내는데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실기시험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는 예술학부, ICT디자인학부 트랙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타 학부 학생들이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는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입시기간 동안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였는데, 실기시험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도 동일한 트랙을 듣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트랙별 설치학부 소속 학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본인이 소속된 학부의 트랙을 선택하지 못하고 잔여인원이 남은 타 학부 트랙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수적인 문제로는 ▲학부 통폐합으로 인한 소속감 저하 ▲학문적 깊이 부재 등이 다수 언급됐다. 소속감 저하는 1학기 초반부터 신입생은 물론, 작년 학과 학생회 재학생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다. 각 학과 학생회가 신입생을 흡수해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지만,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1학년 때 4개 트랙을 골고루 경험해본 후, 2학년 때 적성에 맞는 트랙을 선택하는 트랙제도 구성상, 트랙기준은 곧장 전공수업을 듣는 학부제에 비해 학문의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이미 진로를 확정한 학생들의 경우, 전공을 깊이있게 배우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상력인재학부의 정체성 ▲특정트랙 인원 편중 ▲학생·교수 트랙제도 이해 부족 ▲단과대학 내 학부 구성 기준 모호 ▲트랙명칭 변경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명을 요청한 A학생은 "경제학과 설치 트랙은 수강인원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트랙별 몰림 현상이 심하다"

며 특정트랙 편중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명을 요청한 B학생도 "2학년 때 트랙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교수님마다 말이 다르다"며 혼란스러움을 토로했다. 이들 외에도 "단과대학 내 학부를 구성한 기준이 무엇인지", "트랙명칭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특성도 변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다.

현재 한성대신문사는 트랙제 관련 질의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할 상태이고, 이에 학교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이번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트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성어가 있듯이 우리학교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집단위 광역화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한성 #타임라인

취업지원팀, 외국계 취업 특강 개최

지난 9월 12일 미래관 DLC에서 외국계 취업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는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자인 박성영 씨가 외국계 기업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특강은 기존의 특강과 다르게 진행됐다. 학생들이 강연 참가를 신청할 때 질문사항을 보냈고, 박 강사는 학생들이 보낸 질문을 토대로 외국계 기업의 복지·연봉·기업문화·기업문화·면접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이가영(경영 4) 학생은 "내가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학생 신분으로 쉽사리 얻기 어려웠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특강을 담당한 김양진(취업지원팀) 차장은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학군단, 58기 여자 학군사관후보생 3명 합격 '쾌거'

본교 학군단에서 58기 여자 학군사관후보생에 4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했다. 타대학에서 30명 이상 지원하고 3명 이내로 합격한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합격률이다. 이는 기존 전국 학군단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국 111개 대학에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 약 60개 학교에 여자 후보생이 있지만, 여자 후보생 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는 여자 후보생 선발 방식에서 기인한다. 남자 후보생의 경우 학군단 별로 기본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여자 후보생은 전국 학군단에서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8명씩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격 소식에 대해 정성순 한성대학교 학군단장은 "서울동부권역 13개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합격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58기 여자 학군사관후보생 강인정(산공 2) 학생도 "자랑스러운 한성대학교 학군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지 않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후보생들은 올 겨울부터 2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2020년에 장교(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예술가 레지던시 개소식 열려

지난 9월 1일,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추진사업 중 하나인 '예술가 레지던시(이하 레지던시)'의 개소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지역 활성화에 뜻이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을 위한 거주공간과 작품 활동 공간, 전시 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레지던시 관리비용은 우리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부담하며, 입주작가에게는 소정의 지원금이 매달 지급된다. 이현진(캠퍼스타운 사업단) 운영팀장은 "입주한 예술가들이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지던시 입주 자격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얻을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작업실을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삼선동 성곽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가 등이다. 우리학교 재학생도 입주가 가능하다.

이 팀장은 "청년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며 "우리학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발히 예술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전자출결시스템 오류, 도대체 왜?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전자출결 시스템(이하 전자출결)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것에 비해 UI가 개선되었으며, 출석 인정 시간이 강의 시작 10분 전후에서 강의 시작 5분 전후로 변경됐다.

최원석(학사지원팀) 담당자는 새로운 전자출결에 대해 "현재 학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항목의 '수업관리의 엄정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장기결석자 관리 기능 부재, 추가 기능 확장 제한과 같은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전자출결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강 후 4주가 지난 현재, 전자출결 이용 시 일어나는 여러가지 오류로 인해 일부 학생과 교수가 불편을 겪고 있다. 전자출결은 출석 확인시간을 단축해 수업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자 도입됐지만, 예러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수업시간에 출석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교수는 "계속되는 전자출결 오류로 출석 관리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고충을 밝혔다. 강호근(인문 1) 학생은 "새로운 전자출결은 이용할 때마다 예러가 발생해 평균 5~10분 정도를 늘려야 출석 처리가 된다"며 "저번 학기에 사용하던 전자출결은 처리속도도 빨랐고 출결 현황이나 강의 조회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에도 더 편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학사지원팀은 신규 전자출결 도입 초기인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상관 1층 로비, 탐구관 1층 로비에서 '전자출결 Help Desk(헬프 데스크)'를 운영한 바 있다. 각각의 장소에 시간별로 3명의 학생이 상주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전자출결 문제 상황의 해결

법을 안내했다. 최 담당자는 "헬프 데스크 운영 이후 불만 접수 건수가 전 학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후 접수된 개별 문의는 담당 직원과 근로학생이 처리했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건은 학사지원팀, 정보화팀, 개발업체가 협력해 문제를 파악한 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학생 개인기기에서 전자출결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강의실 정보와 중복 로그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개인기기에서 비롯된 것 외에 다른 오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사지원팀은 향후 추가 오류가 발생하면 상황을 파악·정리해 정보화팀, 개발업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학사지원팀은 새로 도입한 전자출결을 사용하는 재학생들에게 "학사지원팀과 정보화팀은 전자출결 운영 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전자출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사지원팀으로 문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전자출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모습

동정란

- 이상우(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2017년 8월 23일 울란바토르 소재 몽골국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Sustainable Governance in Education'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이기형(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이 교수는 2017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과 'Musée des Arts Décoratifs'에서 한국패션문화협회가 주관한 'Exposition Internationale d'art Coreen de la Mode a Paris 2017'에 참가했다.
- 김성복(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김 교수는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고양시청) 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 은평구갑) 의원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요청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역모집제로 몸살 앓고 있는 대학가

지난 4월,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대학본부에 크게 반발한 사건이 있었다. 대학본부에서 갑작스레 '광역모집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광역모집제(모집단위 광역화)란 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학과 단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제 단위로 모집하는 것이다. 사실 광역모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중앙대만은 아니다.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가 먼저 시행한 바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한림대학교, 제주대학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이를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왜 대학은 광역모집제를 시행할까
광역모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있다. 지난 3월 9일 교육부에서 배포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저성장 보사회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성장잠재력 둔화가 예견되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학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4차 산업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양성

한다는 명목 하에 학사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트랙제를 적용한 우리대학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대학은 다른 학교보다, 앞서 모집단위를 각 단과대학으로 광역화 한 트랙제를 시행했으며, 현재로서는 트랙제를 전면시행 중인 유일한 대학교다. 총 45개 트랙이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모집 정원이 없어 경쟁을 통해 각 트랙이 생존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트랙제의 도입이 예고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잠깐 일어났으나, 우리대학은 2017년 입학생부터 트랙제를 적용하는데 성공한다. 이 트랙제를 통해서 우리대학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마신 고배를 만회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완전제'를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트랙제의 커리큘럼도 아직까진 별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각 학과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학생조직도 트랙제로 유입된 신입생의 상황에 맞춰 회원 모집 방법, 활동 방향 등에 변화를 주고 있다.

광역 모집제, 다른 대학은?

본교 사례를 보면 광역모집제를 시행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앙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교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외대는 2014년에 사회과학계열, 동서양어대, 인문과학계열로 광역모집을



▲과거 광역모집제를 실시했으나, 현재는 인문과학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한 한국외대

시행했으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6년부터 인문과학계열을 제외한 광역모집은 모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외대학보>에 따르면, 양세연(한국외대) 학생은 "과가 바뀐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다"며 "내가 다른 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2002년부터 입학 전형을 학과제 모집에서 학부제 모집으로 전면 변경한 뒤, 10여 년간 그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 특정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사회대는 입학생 전원을 학부제로 받던 것을 '부문 학과제'로

변경해 입학생의 30%만 학부생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70%는 전공예약생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후에도 인기학과 몰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자, 2017년에 들어서 다시 학과제로 전향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가 제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침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광역모집제로 변경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과연 교육의 상이탑인 대학교에서 변화해야 할 것은 학생인가, 대학인가. 아님 이를 뒷받침 진 채로 관망하고 있는 교육부인가.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트랙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학교

'블라인드 채용' 취업 혁명 일으킬 수 있을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정책 때문에 공기업 지원자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인사지원서에 신체 조건이나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5일,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며 공기업 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체계화해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만들어 적용을 의무화했다.



2000년대 초부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김태규 인사담당자는 "직종별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제시하고, 필기 시험,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 절차를 통해 해당 직무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으로 인해 이력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원자의 인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직무 관련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면접 상황에서 자신의 학력, 출신지 등의 정보를 말하는 것은 금지된다. 김 담당자는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상을 노출하면 면접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피면접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채용된 사람의 업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학벌과 업무 능력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인사담당자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담당자도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한지 약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원자들은 도로공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신뢰하게 됐다. 불필요한 스펙 대신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니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며 두 곳 모두 블라인드 채용제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제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이력서상의 몇몇 항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 까지 이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아르바이트, 하루 만에 그만둬도 임금 받을 수 있을까?

일주일 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김한성 씨. 김 씨는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만 해도 돈을 벌어서 겨울 방학 때 여행을 떠날 생각으로 의욕이 넘쳤다. 그러나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일의 강도가 너무 높아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에도 지장을 받았다. 결국 김 씨는 사장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한 후 일주일치 임금을 임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장.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김 씨가 1개월 이상 일할 것이라고 해서 고용한 것인데,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으니 사장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김 씨는 일주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씨는 일주일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의 임금은 처음 근로 계약 시 정한 시기(ex.매월 1일)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해 고용주가 승낙했을 경우, 퇴직일은 승낙 시점이 되지만, 승낙하지 않았다면 다음 달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려야 근로계약 해지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김 씨는 고용

주의 태도에 따라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설령 근로자가 계약과 달리 단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러는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루 만에 그만두고 임금은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권리를 저버리는 옳지 못한 처사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나고 임금을 받게 되면 이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준해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고용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데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신고(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클릭)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김 씨가 면접 당시 계약과 달리 아르바이트를 중도에 그만두게 됐다 하더라도 사장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을 수가 없다. 또한 김 씨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을 받았지만 14일을 넘겨서 받았다면 사장을 상대로 연체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의지박약 당신을 위한 운동 처방전, 스포츠 놀이터



개강한 지 3주가 지났다. 대동제도 모두 종료됐다. 뜨거운 대동제가 끝나고 남은 건 불품 없는 몸통이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봤거나, 끊어볼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법. 헬스장 등록만하고 운동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다.

살은 빼고 싶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다니기는 귀찮은 당신을 위한 곳이 있으니 여기를 주목하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포츠몬스터'가 바로 그곳이다. 이곳은 놀이와 스포츠를 융합한 스포츠 놀이터다. 선조들은 노동도 즐기며 해야 더 잘된다고 노동요를 불렀는데, 운동도 재미있게 놀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운동에 중점을 두고 싶은 사람과 운동보다는 놀이에 중점을 두고 싶은 사람 위해 맞춤형 스포츠를 제안한다.

원하는 운동 부위별로 고르는 스포츠

먼저 운동 부위에 따라 상체, 하체, 전신으로 나뉜다. 상체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클라이밍'을 추천한다. 클라이밍은 홀드(세라믹 등으로 제작한 인공



▲서바이벌로 겨루는 '아트 클라이밍'



▲플랭크 자세를 응용한 VR 체험 '이카로스'

손잡이를 잡고 안쪽에 붙어 다음 홀드를 잡는 동작을 이어가면서 안쪽에 오르는 스포츠다. 자신의 체중이 팔에 실리는 만큼 팔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평소 팔 힘이 없어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다.

하체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러닝 스텝퍼'를 추천한다. 스텝퍼는 양발을 번갈아가며 밟아 운동하는 기구인데, 러닝 스텝퍼는 기존의 스텝퍼에 얼음 깨기 레이싱과 같은 게임적 요소를 추가했다. 집에서 그냥 하기는 귀찮은 스텝퍼를 게임과 접목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친구와 함께 누가 먼저 얼음을 다 깨는지 경쟁하는 것도 좋다. 매력적인 다리 근육을 만들고 싶은 남성들에게 적합한 스포츠다.

팔, 다리 구부릴 것 없이 전신을 단련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카로스'를 추천한다. 이카로스는 플랭크 자세보다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전신 근육을 자극하도록 설계한 VR 체험이다. 전신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VR로 롤러코스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재미를 더했다.

한편, 스포츠몬스터 대표소에서는 입장객에게 만보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밴드를 배부한다. 흥성속 스포츠몬스터 대표는 "시설별 태그 기록이 모두 밴드에 저장된다. 이를 토대로 각 시설별 운동 효과, 예상 소모 칼로리, 걸을 수, 예상 심박 수 등을 분석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린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본인의 스포츠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 스포츠가 도움이 됐는지 파악하고 향후 운동 계획에 반영하면 더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놀이기구처럼 재미있게 즐기는 스포츠

스포츠몬스터에는 놀이공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법한 다이내믹한 기구들도 있다.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즐겨 타는 사람들에게는 '파라볼릭 슬라이드'를 추천한다. 파라볼릭 슬라이드는 85도 경사에서 낙하하는 드롭 슬라이드다. 이 기구의 특별한 묘미는 본인이 직접 손잡이에서 손을 놓고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의 숨 막히는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평소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짚 코스터'를 추천한다. 짚 코스터는 일반적으로 춘천이나 가평 등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짚 라인을 실내로 가져온 것이다. 앞서 소개한 파라볼릭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지만, 순간적인 짜릿함보다는 공중에서 지속적인 스릴을 맞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라볼릭 슬라이드와 짚 코스터는 고소 공포증이 있거나 겁이 많은 사람이 도전하기에는 다소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랩폴링 점프'도 있다. 트랩폴링 점프는 일명 '방방이' 또는 '퐁퐁이'라 불리는 트랩폴링에서 높이 점프하며 스크린에 나오는 몬스터를 잡는 게임이다.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점점 더 높이 점프해야 하는데 괜히 승부욕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몬스터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로프 코스가 있다. 로프 코스는 6.5m 공중에서 6개의 장애물 관문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기는 하지만, 공중에서 외나무다리처럼 걸을 때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아찔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기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스포츠몬스터를 이용하는 꿀팁

스포츠몬스터 내 대부분의 시설은 치마와 구두·슬리퍼를 착용한 경우 안전 문제로 이용이 제한된다. 만약 깜빡 잊고 치마를 입고 왔거나, 구두·슬리퍼를 신고 온 경우에는 매점에서 바지와 신발을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해 착용하면 된다.

또, 군인과 고양 시민은 신분증이나 증빙서류를 대표소에 제출하면 각각 30%,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시간 동안 기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우선 줄이 길지 않은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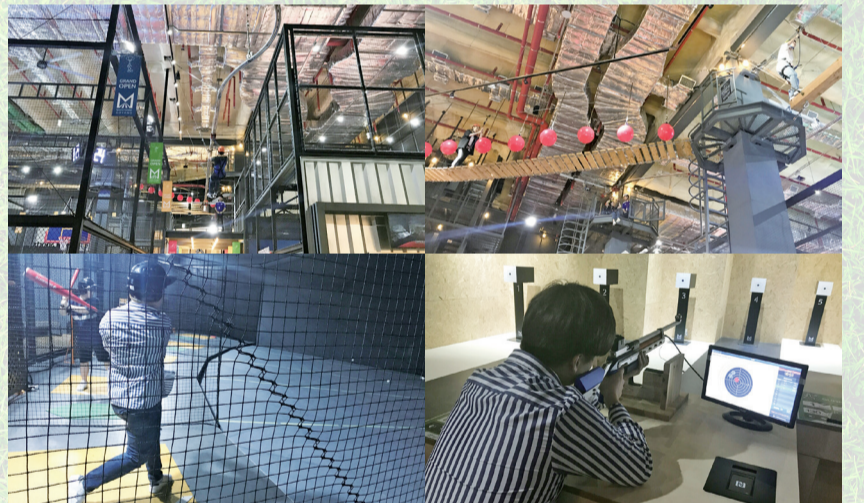


▲85도 경사에서 자유낙하 하는 '파라볼릭 슬라이드'

부터 즐긴 다음, 이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줄이 긴 것을 이용해야 더 많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포츠몬스터는 놀이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꾸며진 스포츠 놀이터다.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법. 무턱대고 헬스장에 등록해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차라리 스포츠몬스터에서 한 바탕 놀다 오자. 쉽고 재미있는 기구들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에 흥미가 붙어 차차 다른 운동에도 관심이 생길 것이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공중에 매달려 주행하는 '짚 코스터' ▲6.5m 높이에서 6코스 장애물을 건너는 '로프 코스' ▲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종목용 LED로 즐기는 '거' ▲스트레스까지 함께 처내는 야구 배팅장 '볼파크'



두 나라의 모습이 공존하는 동네, 송탄

'송탄'이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하철 1호선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송탄에서 하차한 후 주위를 둘러보면 평소 드물게 볼 수 있었던 외국인들이 도처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여기에는 무엇이 있기에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생하고 있는 동네, 송탄으로 떠나보자.

이 지역에는 한국전쟁 때부터 미군공군



1 야시장의 인접, 시장을 걸어다니는 외국인 옆에 걸린 한국어 현수막이 아주 이색적이다.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의 송탄은 미군을 대상으로 한 소프콘과 클럽, 음식점이 성행했다. 미군을 주 고객층으로 한 상권이 발달하다보니 미국적인 분위기의 가게들이 들어섰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송탄 주민들과 동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녹아들었다. 그렇게 송탄저녁시장은 미국적이기도 한국적이기도 않은 송탄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이후, 2012년에 평택시와 송탄시가 합쳐지면서 '평택국제중앙시장'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송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간판이다. 대체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빛바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의 간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공존으로 쓰여 있어, 우리가 알던 간판과는 다른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두 나라의 문화가 공생해왔던 만큼, 이곳

에서는 특이한 음식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탄햄버거를 들 수 있다. 송탄햄버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와도 다르고, 미국식 수제 햄버거와도 판이하게 다르다. 미군부대가 주둔했을 당시에 미군이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이 여건에 맞춰 그 모습을 따라 만든 햄버거이기 때문이다. 송탄햄버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썰어 넣고, 소스도 케첩과 마요네즈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송탄햄버거를 먹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 미국과 한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매주 토요일 밤, 평택국제중앙시장에서는 야시장이 열리는데 공군기지와 맞닿은 시장 정문에서 미국인들이 전통 인디언 복장을 입고 공연을 한다. 같은 시간, 시장 후문에서는 각설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 한미 문화가 어우러지는 송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사람들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야시장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외국인 상인들의 모습이다. 상인들은 베이큐, 핫도그, 피자 등 미국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음식을 사고 팔 때도 원, 달러를 가

리지 않고 화폐마다 가격을 책정해서 금액을 받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번 토요일 송탄에 방문해 야시장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나물 파는 청년들의 이야기, '나물투데이'

땅은 기름지고 나물은 통통해도 당신만은 날씬하게!

오늘 아침, 당신이 마주한 밥상을 떠올려 보자. 고사리, 시금치, 고구마순... 어떤 나물 반찬이 상에 올랐나? 혹자는 나물을 입에 대지까 마뜩할지도 모른다. 가격이 비싸서, 손질이 번거워서 결국 나물 대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에 손이 간다.

하지만 나물을 손질하고 데쳐서 판매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주체가 20대 청년들이라면 어떨까. 대다수가 '청년들이 나물을 판다?'라며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정말로 나물을 파는 청년들이 있다. 나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청년기업 '나물투데이'의 목광균

(28) 부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날 인터뷰에 함께 하기로 했던 서재호 나물투데이 대표는 다음 날 진행될 백화점 판촉을 준비하느라 바빠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뒀다. 나물투데이 사무실 안이 분주한 가운데 목 부대표와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 '나물투데이'라는 상호명에 애착이 갈 것 같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나물투데이는 당일 데친 나물을 보내드린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이름이다. '나물'과 '투데이'가 합쳐져 의미를 갖게 됐다."

- 창업을 하고자 했다면 다른 아이템도 많았을텐데 왜 굳이 '나물'인지.

"처음에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만들자는 취지로 팀원들과 모여서 창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물 사업을 하기 이전에 빗물받이를 먼저 개발했다. 그런데 빗물받이 사업이 잘 되지도 않았고 법적인 부분

에서 문제가 많았다. 빗물받이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 나섰다.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하자'는 생각이었다. 마침 서재호 대표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하고 계셨다. 거기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왔다. 우리들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더해 나물로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나물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나물가게가 나물만 팔았다면 우리는 온라인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올렸다. 그래서 지금의 '나물투데이'가 됐다."

-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힘들지 않았겠나. 하지만 특히 슬럼프에 부딪힌 시기가 있었을 법한데.

"처음에는 서비스를 알리는 것이 힘들었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과정은 말바닥부터 차근차근 구축해야 하는 것이지 않나. 당시 우리처럼 온라인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물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 다른 식품회사와 차별화된 나물투데이만의 판매 전략이 있다고.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맛보다', 시장에서 나누는 정을 온라인으로 가져온 '덤 더 주기', 유통과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판매후기', 매달 어떤 나물이 좋은지 소개하는 '제철나물 큐레이션', 매주 정기적으로 제철나물 세 가지를 보내 드리는 '정기배송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 평소 자부하는 나물투데이의 강점이 있다면.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원래 나물은 먹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특히 나물마다 데치는 시간이 달라서 어떤 나물은 오래 데치면 나물이 퍼지고, 또 어떤 나물은 짧게 데치면 나물이 질겨진다. 따라서 보통 주부들이 나물 손질과 데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메인 요리도 아닌 밑반찬에 오랜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년간의 노하우로 나물을 손질하고 데쳐서 보내드린다. 때문에 고객은 반자마자 바로 양념만 하거나 볶아서 먹기만 하면 된다."

- 현재 나물투데이를 자체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 판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확충할 계획은 없나.

"우리는 '나물투데이'가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물투데이는 하나의 식품 회사다. 현재는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준비하고 있고 식당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당장 내일도 롯데백화점 판촉에 들어간다. 앞으로 판매 플랫폼은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운영하려고 한다."

- 우리학교에도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손질된 나물을 배달받아도 막상 조리하려면 귀찮을 것 같은데, 자취생에게 추천할 만한 손쉬운 나물 반찬이 있을까.

"우리의 모든 나물이 고추장, 된장, 참기름 등 양념을 넣어서 무치기만 하면 1분 만에 나물 반찬이 된다. 최근에 출시한 신상품 중에는 밥 할 때 양념을 따로 하지 않고 넣기만



▲ 청년기업 '나물투데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www.namultoday.com) 메인화면

하면 바로 곤드레 밥, 시래기 밥, 취나물 밥이 되는 제품도 있다."

- 우리학교는 물론이고, 정부 역시 학생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추세다. 창업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해보라'고 한다. 우리도 팀원들이 각자 사업을 서너 번씩은 해봤다. 즉, 모두 실패했다는 거다. 이 실패가 청춘에게 흠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창업지원 제도가 많다. 그래서 정부지원자금을 해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동업자들과 의견도 충돌되고 금전 문제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배울 수 있는 가치가 많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겁이 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여러 번의 고초를 겪어도 또 다시 아무도 감지 않은 길을 택한다는 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쩌면 아무도 감지 않은 길이었음이 오늘날 나물투데이의 창업 성공 비결이 아닐까.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보이지 않기에 더 특별한 당신의 감성

제32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모집기간** 2017년 9월 25일 ~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주 제** 자유(주제에 제한이 없음)
- 제출형식** 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
(e-mail로만 접수 가능)
- 제출사항** 응모작 /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 발 표** 한성대신문 제529호 (12월 4일 발행 예정)
-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이주형 편집국장 010-9286-7531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동화책을 손에 든 이야기꾼들

유지원을 다니며 선생님께 들었던 전래동화, 부모님이 사다주신 동화전집,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우리나라 전설 등.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린 시절부터 동화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동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래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것이기에 그 기원을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지만, 그 범위를 우리나라 동화책으로 한정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동화책의 기원은 20세기 초에 발간된 <조선동화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조선동화 우리동무>, <조선전래동화집>이 잇따라 발간되면서 동화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책이 만들어진 데는 당대 지식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육당 최남선과 소과 방정환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글국립박물관 이고훈 전시해설사(이하 해설사)는 “개화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온갖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전설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보고 육당 최남선은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남선은 1913년, 한문 혹은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있던 ‘바보 온달’ 이야기를 한글로 바꾸어 <붉은저고리>에 써냈고 같은 해에 어린이 잡지 <아이들보이>에 ‘우리나라 이야

기를 모으고 있다는 광고를 실어 각종 이야기를 수집했다.

이 해설사는 소과 방정환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일제 침략 이후, 아이들이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지, 방정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동화에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아주 강하게 깃들여 있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조선어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방정환은 문예지 <개벽>을 통해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모인 이야기를 1926년, 초등학교 교과서였던 ‘심익린’이 집대성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화전집 <조선동화대집>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전집이 만들어진 지 1년 후, 1927년에 두 번째 동화전집인 <조선동화 우리동무>가 ‘한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전집은 이야기마다 간단한 삽화가 들어가 있고, 할머니·할아버지의 말투를 살려 동화 속에 해학적인 요소를 첨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0년에 이르자, 세 번째 동화전집인 <조선전래동화집>이 발간됐다. 이 해설사는 “평안도 출생인 저자 ‘박영만’은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를 매우 좋아했다. 이런 성격은 청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고, 그는 고향 일대를 포함한 북방 지역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앞서 만들어진 두 전집이 남쪽 지방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 책은 북방 지역 이야기를 다뤄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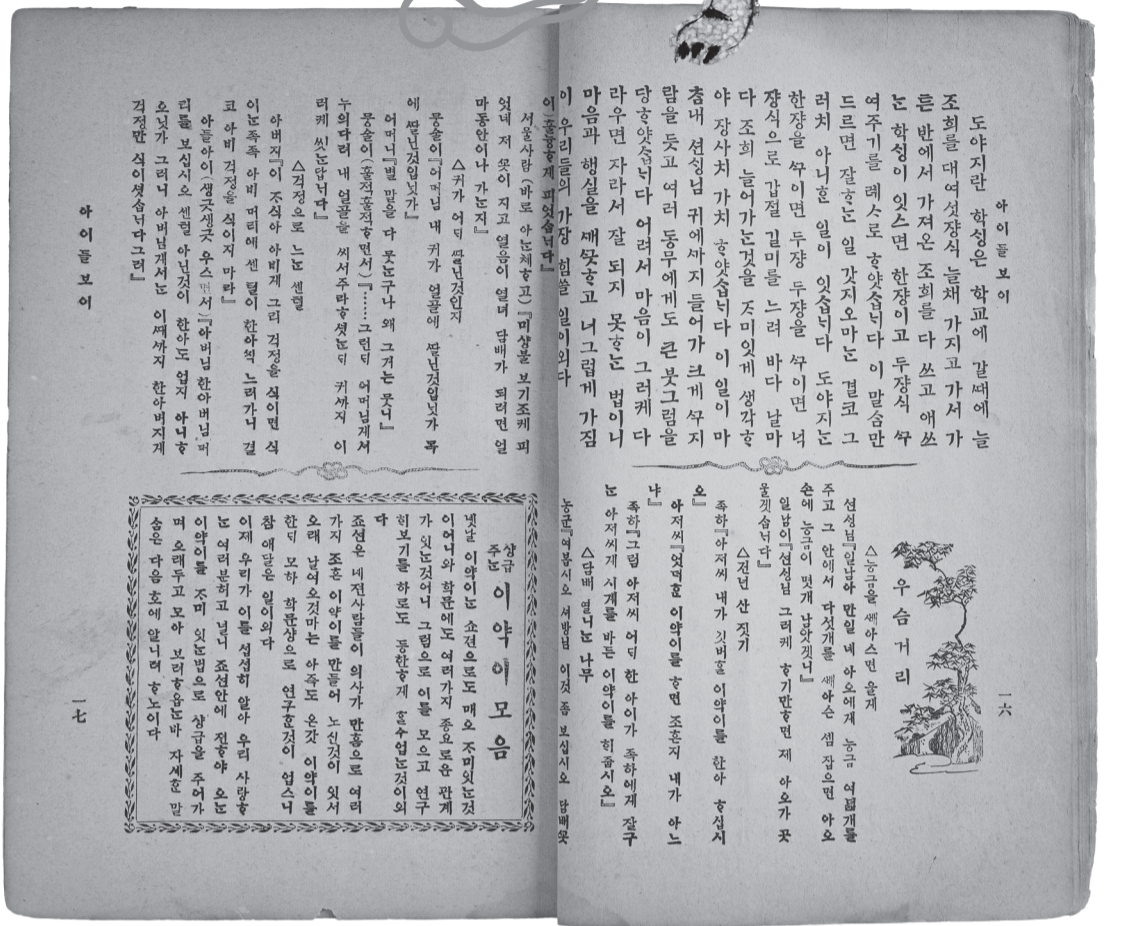
이 책이 발간되고부터 ‘전래동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 더 의미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 책은 소장처가 일본어에서 전사가 끝나는 대로 일본에 반납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동화책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오는 동화들은 우리민족의 정신적 유산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번 한글날을 맞아 동화 속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겨 보자.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 1913년, <아이들보이>에 실린 육당 최남선의 ‘이야기모음’ 광고

역사 카툰

민중과 영웅 사이에서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보라면, 제각기의 대답이 있겠지만 ‘영웅’과 ‘민중’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종류의 인간과 그렇지 못한, 모든 시대의 당사자였지만 어느 역사서에도 이름 하나 실리지 못한 평범한 인간들. 전자는 대개 세계에서 주역으로 대두되나, 후자의 경우는 불과 300여 년 전까지도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돌연 이들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대두되는 때가 있었으니, 바로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이 그것이다. 이렇게 양극단에 놓여있는 두 종류의 인간이 교차하던 시대에, 자신의 작품을 녹여낸 한 명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에 대해 알아보자.



작품 :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연도 : AD 1801
작자 : 자크 루이 다비드

자크 루이 다비드는 19세기 프랑스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예술가다. 신고전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그는 특유의 영웅적이고 고전적인 작품들로 많은 유명세를 누렸으며, 지금까지도 서양미술사를 논할 때 빼놓으면 섭섭한 걸출한 작품들을 다수 창작한 바 있다.

그는 예술가이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정치가이기도 했는데, 이 덕분에 그는 격랑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18세기 프랑스의 혼란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열렬한 공화주의자로서 자코뱅당의 일원으로 활동

하기 시작하면서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당시 그는 별달리 의도하지 않았으나 후에 혁명을 예고한 작품으로 여겨지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암살당한 혁명가의 죽음을 표현한 <마리의 죽음>은 ‘마라’라는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과 숭고한 희생을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동시에, ‘정치 참여로서의 미술’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명작 중 하나다.

이렇게 ‘민중의 정치’에 앞장섰던 그는 결국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투옥되었으며, 당시 황제로 군림했던 나폴레옹의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은 19세기 신고전주의의 선구자, 자크 루이 다비드에 의해 그려진 작품이다.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기개와 신화적인 위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나폴레옹 황제의 창작 당시 세심한 요구를 받아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다. 화가 본인이 과거 프랑스대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황제인 나폴레옹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 작품이 색다르게 보일 것이다.

정치체제에 협력하고 궁정예술가로 일하게 된다. ‘민중의 예술가’가 ‘영웅의 예술가’로 변모한 순간이었다. 그는 궁정예술가로 일하며 그의 대표작으로 여겨지는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을 그려낸다. 나폴레옹의 위풍당당함과 영웅적인 기상을 표현한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를 원류로 하는 신고전주의의 역작으로 여겨진다.

일생을 민중과 영웅의 사이를 오가며 예술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자크 루이 다비드. 과연 그가 보고 경험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쩌면 그조차도 그 답을 위해 평생 헤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양찬 잡학사전

쫘득쫘득 액체괴물, 그 쫘깃한 비밀



<편집자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김 기자 김막알잡의 진행자
슬 씨 액체괴물을 모으고 있는 액괴 콜렉터
라 씨 액체괴물 전문가를 꿈꾸는 크리에이터
임 씨 자칭 ‘걸어다니는 액체괴물 사신’

[김 기자]: 가수 아이유가 빠져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바로 ‘액체괴물’인데요. 액체괴물은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어 어린이 장난감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 중간의 특이한 성질을 가진 액체괴물. 이 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슬 씨]: 액체괴물 성질의 비밀은 바로 ‘점탄성’입니다. 점탄성은 물질이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지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점탄성 물질은 점성이 높아 힘을 가해 변형을 주면 고체의 특성을 보이고, 그대로 방치하면 다시 액체처럼 변합니다.

[라 씨]: 점탄성을 이용한 장난감은 액체괴물이 처음은 아닙니다. 액체괴물의 조상격인 ‘실리 퍼티(Silly Putty)’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무 대체물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실리 퍼티는 너무 끈적해서 군수품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리 퍼티, 즉 멍청한 반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후, 아폴로 우주 비행사는 실리 퍼티의 끈적한 점착 특성을 활용해 무중력 상태에서 공구를 고정할 때 사용했어요. 지금은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지만요.

[임 씨]: 군수품을 만들다 생겨난 것인 만큼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에서 액체괴물 물건을 가지고 놀던 11세 여아가 손바닥에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방송에서 보도됐어요. 담당 의사는 화상의 원인을 액체괴물 제조 원료인 ‘붕사’에 장기간 노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붕사는 특수유리, 도자기의 유약 원료, 세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붕사에 중독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급성 중독될 경우 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만성 독성의 경우 습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슬 씨]: 실제로 붕사의 유해성 때문에 붕사를 대신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소다를 쓰거나, 풀 대신 치약을 활용하는 제조업체도 있어요. 그래도 액체괴물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 때는 주의해야 해요.
[김 기자]: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보니 액체괴물 전문가가 된 느낌이에요. 참고로 액체괴물은 문방구에서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지만, 유해성 논란이 있으니 반드시 KC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막알잡은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의화정 새내기, 좌청룡이 부상하는 중심에서

새내기 학생만큼은 아니겠지만, 새내기 교수에게도 여러 신선한 체형들이 있다. 요즘 같이 신선한 바람이 부는 날 초저녁, 연구동 건물 위에서 조망하는 낙산과 서울 중심부의 빼어난 장관은 가장 즐거운 체험 중 하나다.

학교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한양도성과 낙산(駱山)공원 일대 생태계의 변화는 놀랍다. 종묘와 경복궁, 창경궁 등의 녹지와 시내를 조망하고, 조선을 건국한 시점의 풍수지리적 발상에 감탄하면서, 낙산에 대한 그간의 무지를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었다.

낙산은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한 경복궁의 왼쪽에서 '좌청룡'의 역할을 하는 산이다. '좌청룡'은 풍수지리에서 아들과 벼슬을, '우백호'는 딸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하니 당시에는 마주보고 있는 인왕산 이상의

대접을 받았나보다.

조선 초기 좌측은 해가 뜨는(경복궁의 왕이 바라볼 때) 동쪽이므로 우측보다 중시되곤 했다. 좌의정은 우의정보다 지위가 높았고,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는 경복궁의 왼쪽,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은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아파트가 많은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 왼쪽 아파트의 기운을 학업운으로 따진다는 얘기도 있으니, 낙산이 서울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두말 할 나위 없다.

새내기 교수로서 하는 또 다른 신선한 체험은 간간히 발표 등을 통해 접하는 학생들의 변칙적인 창의성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상장회사, 벤처캐피탈 임원 등을 지내면서 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에도 있어왔지만,

사람의 이력보다 매력적인 건 창의성과 적극성이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부품처럼 일할 사람의 학교나 전공 등이 중시됐을 수 있지만, 창의와 융합을 기본으로 한 지금의 경제구조에서는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백악산, 남산, 인왕산에 비해 소외됐던 좌청룡의 기운이 부상하는 걸까. 10년 전 백악산 뒷길과 청와대 앞, 총리공관 앞길 등이 개방되면서 일대가 크게 변화했던 것처럼, 천년고도 서울에서 낙산 주변의 위상도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좌청룡의 중심부 한성대학교에서, 10년 후 학교, 학생, 교수 등이 만들어낸 변화와 위상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김동하(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

기자수첩

240번 버스 논란이 오후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버스기사 딸이 SNS에 해명글을 게시하기 전, 버스기사는 어느새 '버스에서 혼자 내린 어린이를 따라 내리지 못해 울부짖는 어머니를 욕설과 함께 무시한 사형감 인간팔짱'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버스 CCTV 관독 결과, 당시 어머니와 아이는 떨어져 있었고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뒷문이 16초간 열려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아이가 버스에서 내렸음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버스가 출발하고 2차선에 진입했을 때 하차를 요구했으며, 버스기사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버스기사 측 해명글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진 후,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어머니

협오할 준비가 된 사람들

가 '자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동학대 맘충'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CCTV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직접 신고나 제보를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초기 제보자의 사과문이 해당 카페와 SNS에 전파되면서 어머니를 향해 증오를 내뿜던 사람들이 조심스레 손가락을 거두고 다시 언론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번에는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사를 쏟아낸 기레기'라며 언론을 모독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240번 버스 사건 정황과 초기 제보자가 제보한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요즘 우리는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24시간 협오 대기 중이다. 매 순간 협오를 정전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낚임이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고 뜯고 할란다. 증오와 분노로 뿔뿔 뭉쳐 누군가를 저주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잣대'를 들이밀어야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몇편을 읽고 얼마나 큰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수가 서로 격려하기까지 하면서 협오와 증오는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리다가 우리는 머지않아 인간사회를 불신과 살의가 난무한 파국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 순간에도 바둑바둑 이를 갈며 협오대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그저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낙산에 올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말을 걸 낚남도 안 되고, 예의도 아닌지라 책 표지를 쓱 보고 제목을 적어둘 뿐입니다. 그리곤 집에 와서 검색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한 권 삽니다. 좋은 책일 때가 많습니니다. 무겁고 딱딱한 책을 들고 다니는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려면 그만큼 재미있는 내용일 테니까요. 물론 전공서적이거나 참고서는 예외입니다. 무게뿐 아니라 내용도 짝짱한 경우가 많죠.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 혹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구조개혁평가로 학교가 들쭉거리던 시기, <한성대신문>은 호황이었습니다. 대나무숲이나 한대말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접근성도 편하고 피드

특별함을 잃으면 읽지 않는다

백도 빨랐지만 사실과 소문 사이의 정보들이었죠. 취재를 통해 얻어낸 신뢰성 있는 정보, 정제된 글 즉, 신문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신문사 블로그를 둘러거리며 정보를 찾아내고, "어제자 학교 신문 봤어?"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 날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우린 매일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기도 하고, 웹툰을 보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기도 하죠. 수업시간 프린트를 미처 못한 날에는 발제문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은 '책으로' 혹은 '신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문보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는 게

훨씬 빠르고, 책이 아니더라도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넘쳐나니까요. 스마트폰 덕분에 읽을거리, 볼거리에 접근하는 게 편리해졌습니다. 재미없는 것들은 가차 없이 밀려납니다. 하지만 책과 신문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면, 사람들은 책과 신문을 읽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까다로운 독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개성있는 글맛과 그 글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을거리를 찾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뒤적거리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처럼, 재미있고 진정성 있는 글을 찾아 읽는 여정과,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를 만났을 때의 마음은 모두에게 가슴 설레는 일일테니까요.

이광호(한국어문 3)

삼학송

취재유단(取材有段)

우리 문학사에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긴 조지훈 시인은 생전에 「주도유단(酒道有段)」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굳이 풀어나자면 '음주에도 단(段)이 있다'는 뜻이다. 제맛 술 마시는 일에 무슨 단이 있고 급이 있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단지 시인의 풍류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글의 내용이 꽤 흥미롭다.

시인은 주도(酒道)를 총 9급과 9단으로 나누었는데, 1단에 이르러 주도(酒徒)에 이르지 않은 자는 모두 주졸(酒卒) 이하라고 하여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가장 낮은 9급은 불주(不酒)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마시지 않는 사람을 이른다. 이후 높은 급수로 갈수록 술을 겁내지 않으나 취하는 걸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懼酒), 술자리로 연을 잇속이 있을 때만 마시는 사람(商酒), 밥맛을 돋우기 위해 마시는 사람(飯酒) 등으로 서서히 수준이 올라간다.

단에 올라서면 설명 내용이 '급'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주급(酒級)'들이 술을 두려워하거나, 무언가 목적을 위해 마신다면 1단인 애주(愛酒)는 술을 취미로 먹는 사람을 말하며, 이후 7단은 술은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인 사람, 8단은 술을 보고 즐거워하되 마시지는 않는 사람으로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마지막 9단인 폐주(廢酒)는 술로 인해 '탄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을 칭한다. 한없이 술과 가까워졌다가 점점 술에서 멀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술과 함께하다 같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술에도 단이 있는데 취재에는 단이 없

다고 한다면, 비록 학생일지언정 교내인론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리고 확실히 취재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숙련도에 따라 단계가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신문사에는 수습기자, 정기자, 부장기자 등의 단계가 실존한다. 그럼에도 굳이 시인의 글을 인용한 것은, 취재로 급(級)은 이루어졌으나, 과연 단(段)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단을 이루면 일단 그것에서부터 멀어져야한다.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행한 것이었는지 일단 '취미' 정도로 격하되어야하는 것이다. 기자보고 취재에서 떨어지라니?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시인의 풍류' 정도로만 취급했던 이 글이 다시금 다가온 것은 편집국장으로 취임한 이후다.

편집국장은 원칙적으로 취재활동을 하지 않는다. 덕분에 다른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담당기자가 쉽게 짚어내기 어렵다. 기자도 사람인 지라 기계처럼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개인적인 견해가 관여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취재에서 떨어져보면 그런 것들은 쉽사리 눈에 띄기 시작한다. 취재에서 떨어졌더니 되려 취재와 가까워진 것이다. 취재에도 과연 단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물음표로 끝날 말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탄세상'으로 가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주형 편집국장

낙산만평

유은강(영문 2)

2주기 대학구조 개혁 평가
평가 지표는 언제 나오나..

축제 준비
축사를 뭐라고 하지?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교수협의회
오...머리아..

학생들과 소통
시간 남을 때 해야지...

재정지원제한 완전 탈출
자랑하고 싶은 전리품

Hansung Engineering Competitive Exhibition

제13회 한성대학교공학경진대회

일시: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 29일 금요일

대회 일정

첫째날 9월 28일 목요일		둘째날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전시장 개장	오전 10시	전시장 개장
오후 3시	전시회 개최식 축하 다과회	오후 2시	시상식
오후 6시	전시장 폐장	오후 3시	전시장 폐장

장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3층 체육관

II공과대학 교육목표

-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한다.
-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공학인을 양성한다.
- 지식정보화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한다.

주최: 한성대학교 II공과대학
주관: 한성대학교 공학교육개발센터
문의처: 공학교육개발센터 02)760-5975

후원:

